

사진교실 / 1차시

이지은 작성 (1차 2024-04-26, contact@leejieun.net)



안녕하세요

저는 이지은이에요

오늘 할 얘기

- 1) 앞으로 우리 사진 수업의 방향
- 2) 그동안 익힌 내용 정리

앞으로 이 사진 수업을 통해...

1. 우리는 서로 배울 수 있어요

TV 칠판

서로 얼굴을 보고

동그랗게 둘러 앉아요

서로 말이 잘 들리도록

2.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배울 수 있어요

**사진은
어떤 사람이 자기 현실을
잘라내어 그릇에 담은 거예요**

사진은 남의 시선을 빌려줘요

그 사람이 살았던
생활상, 사회, 역사..

그 사람이 느꼈을
고민, 아름다움, 감동..

저는 세상의 사진을 소개해요

* 여러 작가, 구성, 역사, 내용을 다뤄요

함께 감상하고
서로 생각을 나눠요

* 다양한 방법을 쓸 거예요

남의 시선을 보면 볼수록
나라는 제약을 넘어서서 지평이 넓어져요
그러다보면 내 세상을 잘 담아낼
다양한 방법을 알 수 있어요

3. 우리는 스스로로부터 배울 수 있어요

지난주에 찍은
사진에 대해
말해요

“나는 무엇을 봤어요”

(우리는 지금 이 단계에 있어요)

“왜 이렇게 찍었나요...”

(촬영 의도를 말할 수 있다면 한단계 성장한 거예요)

“다음엔 어떻게 찍을래요

그러면 더 좋은 표현이 될 것 같아요”

(11월이 지나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사진은 기계를 써서
내가 보는 세계의 일부를
저장하는 방법

내 눈으로 보는 세상과

카메라(스마트폰)으로 보는 세상은

같을 수 없어요

나의 제약... 시차...
기계의 제약...

곧 이해할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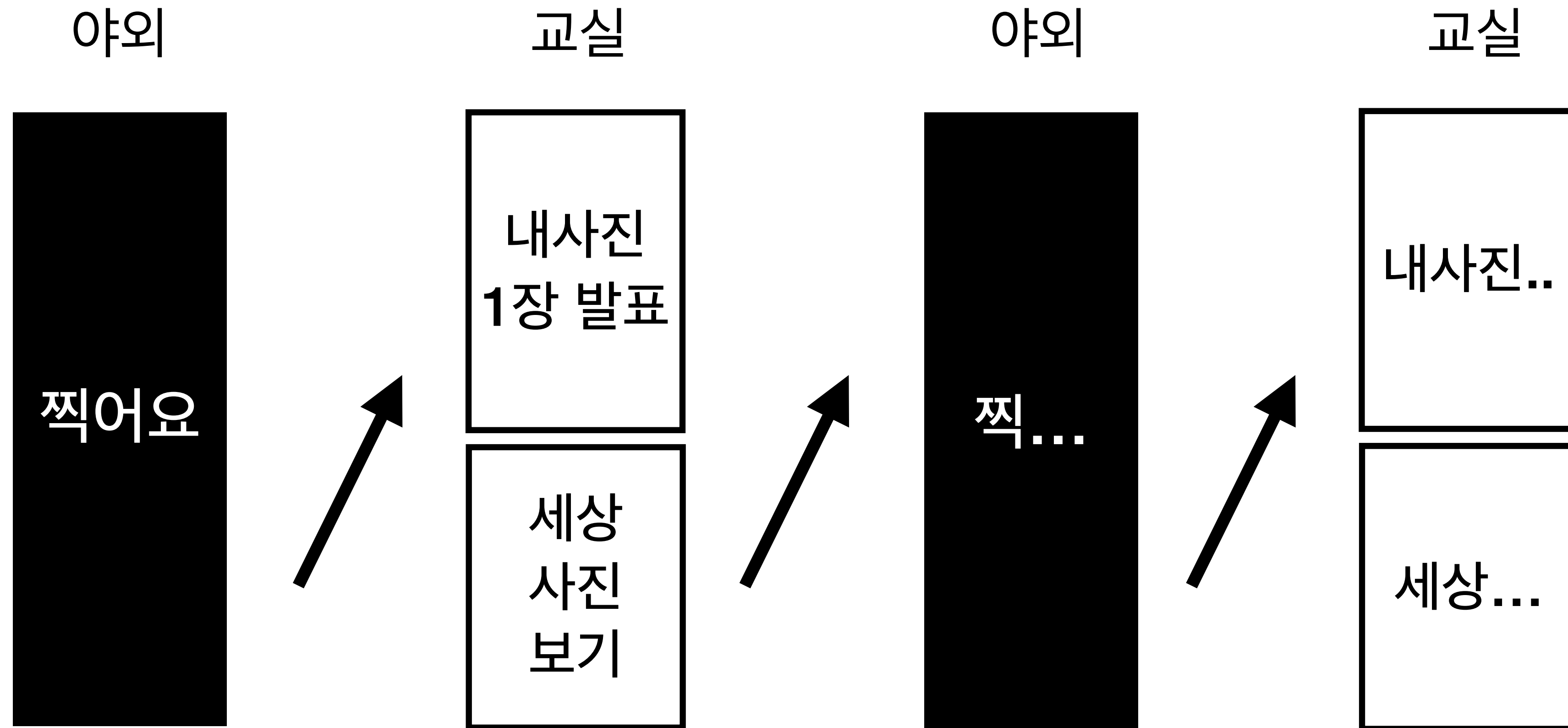
차이를 알면 사진이 좋아져요

우리는 올 겨울에 전시를 해요

아마도 10~12 번의
교실수업과 야외수업이
각각 있을 거예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교실				방학			
야외							전시?
교실							
야외							

촬영, 발표, 감상을 반복하며 배우고 성장해요



이 교실에 모인 우리는 동반자예요

자기 시각언어를 깨치는 과정을 함께해요

11월 전시는 ‘내 시각’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기회예요

“...나는 세상을 이렇게 봐요

...내 세상은 이렇게 생겼어요

...내 세상의 아름다움은 이거예요”

세상은 이런 과정을 예술활동이라고 불러요

그럼 우리는 누구일까요?

예술가요~

생각 나누기 시간

4월까지 사진교실을 통해

무엇을 익히고 느꼈는지 얘기해요 🤗